



염중호_예의를 잃지 맙시다_2012

공존에 대한 예의, 아니면 최소한의 염치

글 최현주

오늘은 군말 없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찬찬히, 보도록 하지요. 길가에 웬 나무 화분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택배 상품일까요? 새로 개업한 탐정처럼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배달된 화분이라면 응당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어라, 이 친구는 가로놓혀있군. 혼자 생각하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비닐로 돌돌 싸여있군요. 그런데 저 비닐은 보호용이 아니라 '처치용'으로 보입니다. 웬지 함부로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이 친구, 피곤한 노숙자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 상태로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사진으로 눈길을 돌려봅니다.

이건 또 무슨 나무죠? 배경의 나무들과 건물 높이로 보아, 가로수로군요. 어제 풀이 영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지를 해놓은 모양입니다만, 저 정도면 가지를 친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화풍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없이 잘라놓았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모두 이런 형태로 서있는 날은 아마도 2999년쯤이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기말처럼 을씨년스럽습니다.

사진가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나무들은 프랑스와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만난 나무들일 것입니다. 사진가 염중호의 눈에 포착된 나무들은 자연 속에서 기개를 떨치고 사는 나무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기 위해 교회 안에 옮겨진 나무, 건물 모퉁이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듯 웅색하게 서있는 나무, 보도블럭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겨우 이파리를 밀어내고 있는 밀동만 남은 가로수…… 하나 같이 나무 본연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풍요로움이나 초록의 생기를 발산하지 못하는 나무들입니다. 불편의 나무이고 불구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 도시의 삶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말이지요.

이들은 '잡혀온' 나무들입니다. 포획된 것들의 삶을 삽니다. 정원이나 대로변에 놓여 있다 해도 제 껌냥껏 자라지 못합니다. '제돌이'가 생각나는군요.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되어 쇼 공연업체에 팔려온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1년 뉴스에 보도된 후 제돌이는 제주 김녕리 목지코지 해안 부근의 해상가두리에서 귀향 훈련을 마치고 2013년 7월, 마침내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포획된 지 4년만의 일이었습니다. 불행과 천만다행 사이를 오고 간 제돌이 방사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남겨놓았지요. 제돌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이제 막 '동물복지'의 개념에 눈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으므로 갈 길은 멀고도 멉니다.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불법 포획되어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길들여지고,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 따위에 돈과 공을 들인다고 불평합니다. 동물은 오직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이 마당에, 사진가 염중호는 인간의 도시에 포획된 나무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식물복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나무는 최소한의 식물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연과 생명의 단위입니다. 이이의 사진 속 나무들이 버려진 반려견이거나 함부로 취급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이 시선은 '식물성'의 시선입니다. 사진가는 전시 타이틀을 통해, 점잖게 한마디를 내어놓을 뿐입니다. "예의를 잃지 맙시다."라고. 그러므로 이 사진들은 인간의 도시에 포획되어 꺾이고 재단되고 사용되고 버려지는 식물들에 대해 최초로 인간의 '예의'를 바친 사진입니다. 도시의 인간들이 '영혼도 없이' 나무에 바친 수많은 감탄과 찬사와 경배에 대한 최초의 고해성사입니다. 식물과 자연, 아니, 사람들끼리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고요한 성찰의 시선입니다. 어쩌면 "예의를 잃지 맙시다."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아직 예의를 잃지 않은 식물이 식물에게 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식물로서의 예의를 잃지 말자고, 그것은 인간의 도시에 포획되어 꺾이고 재단되고 사용되고 버려지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이며 마치